

##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

◀14



**이 충 현**  
경희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최근 신문 지상을 통해 믿기지 않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했던 직년의 이혼 사례 5천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한 경우가 52%로 남편에 의한 것을 능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대다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비정상적인 가정의 통계이고, 신사업장의 후예인 대다수 한국의 아내들은 일부중사를 당연한 마력으로 여기고 현모양처를 귀경으로 하여 일생을 살아가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저 형태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피곤하고 막 못 주는 남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또 이를 과거처럼 참고 지내기 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남성 위기의 시대에 '사랑이 뭐길래'의 때밭이 아버지처럼 과거의 영웅(?)를 찾고 집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때들보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여타가지 면에서 변화가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담당했던 수 많은 환자 중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두명의 환자가 있다.

그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과연 이 사람이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판명해 달라는 신체감정의뢰서와 함께, 다른 사람도 아닌 장인에 의해 이끌려 온 의기소침한 젊은 새 신랑이었다. 혼자서는 지극히 정상인 이 새 신랑이 신혼여행 중 밤일을 못했다 해서 여행 직후 새색시가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냈던 것이다. 몇 가지 검사 후 예측한대로 정상임이 판명되었고, 이 환자는 정상이라는 보증을 하면서 장인에게 초보운전 시절에는 시동을 잘 못 거는 수도 있으니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딸을 잘 구슬러 보라고 권유했었다.

그 후에 그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느낀 그 젊은이에 대한 연민의 정과, 엔진의 출력이 정상일 때도 이러니 나이가 들어 엔진의 마력 수가 점점 약해질 때 당하는 박해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걱정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또 다른 한 분은 78세의 노인으로 기억된다. 젊은 직업 여성과 외도를 하신 후,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요도로부터 화농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오셨던 분이였다. 소변검사와 균 검사에서 임균성 요도염으로 판명이 되어 치료를 해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그 노인 환자의 태도는 손자뻘 되는 젊은 의사에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런 기분으로 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인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나 스스로 그 나이가 되어서도 과연 저런 행복스러운(?) 병에 걸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부러움이 들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런 분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대다수의 노인 환자 뿐만 아니라 초로의 중년 남자의 경우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태도로 주위에 신경을 쓰면서 “저어”, “그것”과 같은 관계대명사를 서두로 해서 소변이 가늘어졌다거나 음낭밑이 습하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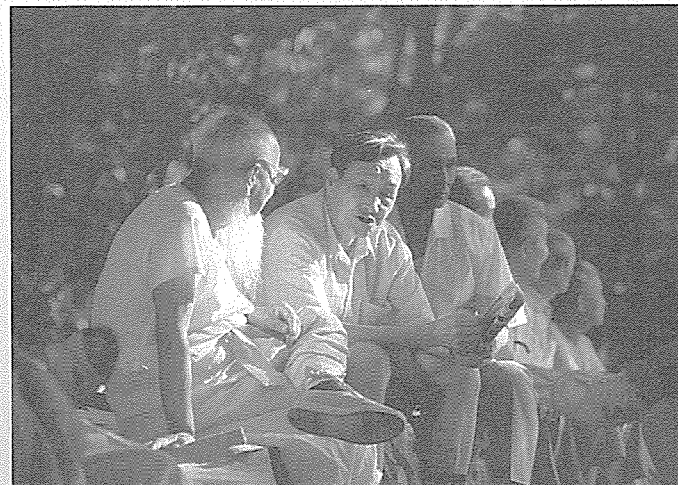
그래서 필자가 성생활에 관해 넌지시 여쭙어 보면 약간은 당황한 모습으로 나이 먹은 늙은이가

그런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며 애써 초연하시려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송구스럽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쇠잔해 가는 빛 바랜 불꽃을 느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차츰 변해가는 여성의 적극성에 발 맞추어, 이런 쇠잔한 호롱불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태양이 되기 위해 남성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외도를 해서 남성에게 의한 이혼소송의 비율을 높이지는 것은 아니고, 한 집안을 조절 통제하는 가장으로서 지휘자가 관현악단을 지휘해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이 화목하고 사랑에 가득 찬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생활만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예의를 중시했던 우리 나라에서는 성생활 자체가 솔직하고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야 하고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급한 태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술자리에서나 있음직한 허풍에 가까운 과장된 성에 관한 잡담을 진실로 오인한 데서 느끼는 열등감, 성 행위 자체, 아니면 정액의 배출이 인간의 기력을 쇠잔케 하리라는 추측 등이 뭉쳐서 고개 숙인 위기의 남성을 낳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리라 생각되는 외국의 통계지만, 발기가 잘 안되는 임포텐스의 발병률은 20, 30대에는 1% 미만이고 40대에 5%, 50대에 10%, 60대에 20%, 70대에 30%, 80대에 50% 정도이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주일에 행하는 정상적인 성생활의 횟수는



대략 20대에 2회, 30대에 1.7회, 40대에 1.3회, 50대에 1회, 60대에 0.5회, 70대에 0.4회, 80대에 0.2회 정도이다.

이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젊었을 때에 비해 나이가 들면 생리적 변화로 인해 아무래도 성 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내분비계의 기능 저하로 성욕이 감소되고 신경계의 이상도 나타나며, 발기가 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경내의 동맥이나 해면체에 경화가 일어나고 피막이 약화되어 발기력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 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지면 발기불능이 초래되게 된다. 즉 노화에 따라 성 기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노화가 곧 임포텐스는 아니며, 노화와 아울러 임포텐스를 야기시키는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신체를 가져야만 정상적인 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의심하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성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노년기에 많이 생기고, 임포텐스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등이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금연, 금주, 알맞은 운동 등으로 꾸준히 몸 관리를 하면 정상적인 성 생활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임포텐스에 관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많이 연구 개발되어 과거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비뇨기과를 찾아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권한다. 비뇨기과에는, 현재 길거리 골목마다 즐비한 몬도가네식 보혈 강장제는 없지만 그 정도의 경제적 부담으로 성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약제나 방법이 있으므로 정도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찾아 치료를 하면 지금의 연세에 알맞



는 정상적인 성 생활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다.

단적인 예로 비뇨기과 수술 중 근치적 방광적출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 많은 경우에서 합병증으로 혈관이나 신경 장애로 인한 임포텐스가 초래된다. 이 경우의 임포텐스는 다른 여러 원인에 의한 것보다 상당히 중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음경 해면체내 자가주사법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원만한 성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치료를 행한 결과,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은 단지 성 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질(quality of life)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해 하는 모습을 대할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 생활도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의 건강을 판정하는 척도가 되므로 이를 유지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며 늙어서도 성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체념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여러 가지 병의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성 생활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 생활을 포기하고 사는 의기소침한 고개숙인 황혼이 되기 보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대쪽같이 고개를 꺾듯이 세우고 안으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가장의 위치로, 밖으로는 요사이 젊은 것들의 경거망동을 호령하시는 인생의 경륜과 열정을 가진 어른으로 건강 한 노년을 보내기를 권한다. 